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정복혜 칸디다

(? - 1801)



‘정 과부’라고 알려진 정복혜는 한양 근처의 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1790년 무렵 이합규를 만나 천주교 신앙을 배우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입교한 후에는 친정 오빠와 아들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과부가 된 뒤로는 한신애 아가타, 윤운혜 루치아와 함께 신자들 사이의 연락을 도맡았다. 또한 교회 서적을 팔고 교우들과 함께 교리를 강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정복혜는 먼저 성물과 서적들을 한신애의 집에 숨겨 두고 교우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하였다. 그러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해 2월에 체포되었다. 형조와 포도청에서 문초와 형벌을 당한 그는 한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였지만, 곧바로 뉘우치고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였다. 결국 형조에서 “너는 남자 신자들과 어울려 부녀자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으며, 천주교 서적과 성물들을 모아 한신애의 집에 숨겨두고 훗날 천주교를 전파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사형 선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 나가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1년 5월 14일 (음력 4월 2일)이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연중 제26주일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소리 주보 ▶



입당송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아모 6,1ㄱ.4-7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1티모 6,11ㄱ-16

복음 환호송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복음 루카 16,19-31

영성체송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새해 축제



새해 축제를 지내는 유대인들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은 이스라엘의 새해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가을에 웬 새해인지 의아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부터 민수 29,1에 언급되는 “일곱째 달 초하룻날”을 새해 첫날로 지내왔습니다. 서로에게 [샤냐 토바]라고 인사하며 ‘복된 새해’를 기원하고 송구영신하는 때입니다. 새해의 나날들이 달고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꿀에 사과를 찍어 먹거나 석류를 쪼개 먹습니다. 특히 석류는 알갱이가 613개라는 전승으로 풍요를 뜻하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613 가지의 율법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새해를 맞는 관습은 이스라엘에만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고대근동에서도 가을에 새해 축제를 지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이 지닌 기후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메마른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건기 동안 누렇게 뜬 산과 들이 비를 맞으며 다시 푸릇푸릇해지는 가을을 예부터 한 해의 시작으로 여겼을 터입니다. 마치 천지가 다시 창조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까닭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예레 5,24 등)라 칭합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자리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런 자연의 순환을 설명하는 신화가 존재하였고, 그에 맞는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제 8,14에 언급된 ‘탐무즈 신 애도’입니다. 탐무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생명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봄이 지나 건기가 시작되면, 풍요

의 신 탐무즈가 죽어 저승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탐무즈가 부활하면, 가을에 비가 내리며 천지가 도로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탐무즈의 부활을 기다리며 애도하는 전례를 거행한 것입니다. 이런 전례가 고대근동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예제키엘서에도 언급됩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주님의 집 북쪽 대문 어귀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는 여자들이 앉아서 탐무즈 신을 애도하고 있었다.” 이는 주님의 성전에게까지 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을 꾸짖으려고, 예제키엘이 환시로 본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해 축제는 우리 설날처럼 즐거운 기간이지만, 심판과 기억의 때이기도 합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하느님께서 왕좌에 앉으시어 모든 인간의 행위를 적은 책을 검열하신다고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모습과 그 결과에 따라 선인과 악인 그리고 중간 단계로 나누어 심판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서로 [하티마 토바] 곧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해 줍니다. 이는 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복이 넘치는 새해를 맞으라는 기원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오후에는 지난 해 동안 지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거나 빵 조각 혹은 돌맹이를 던져 넣기도 합니다(사진 참조).

한 해의 봄과 여름을 보낸 우리도 이제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순조롭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며, 성경의 새해 축제를 기념합니다. ☸



봉사 직무와 거룩한 권력

「교회헌장」 제18항

「교회헌장」 제18항은 교회 안의 봉사 직무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진술로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또 언제나 증가시키도록 당신 교회 안에 온몸의 선익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봉사 직무(ministeria)를 마련하셨다.” 교의적 정의와도 같은 이 첫 문장에서 전제되는 것은 교회 안의 ‘여러 봉사 직무’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 직무는 직무 자체로서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을 위한 직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무의 수행은 오로지 하느님 백성을 사목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이 직무는 온몸의 선익을 위한 사목 직무입니다. 양 떼를 위한 목자의 직무입니다.

공의회는 이 봉사 직무자가 “거룩한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미 10항에서 직무 사제의 “거룩한 힘”으로 언급되었는데, 이 표현 역시 봉사 직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립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권력은 봉사 직무의 수행을 위해서, 곧 직무자들이 형제들에게 봉사하여 하느님 백성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이 직무의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품위를 지닌 사람들이 자유롭게 질서 있게 같은 목적을 함께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능동적으로 부름을 받은 하느님 백성이 직무자들의 봉사에 협력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과 연결하여 교계 제도의 연속성, 교황의 수위권 그리고 교황의 무류성에 대한 가르침을 언급하는데, 대부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1회기의

끝에 제출된 필립스의 새로운 의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먼저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파견하셨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설립’이 ‘사도들의 파견’과 조심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이 교회의 목자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주교들의 파견’이 ‘교회의 사목’과 연결됩니다. 곧 사도들의 파견이 교회의 설립과 관련이 있다면, 그 후계자인 주교들의 파견은 교회를 유지하는 사목과 관련됩니다.



봉사 직무인 주교직은 하느님 백성을 사목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세워졌다.
청소년들과 만나는 의정부교구장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

이어서 공의회는 “주교직 자체가 하나로서 갈라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신 “베드로 안에” ‘신앙과 친교의 일치’를 위한 “영속적이고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언급합니다. 주교직의 일치를 베드로의 수위권과 연결하는 것은,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한 교도권의 형성에 작용하시는 것이 그분께서 베드로를 사도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신 것과 연계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의회는 「교회헌장」 제3장을 통해서 교황과 주교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선언합니다. ●

흔들림을 멈추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까지



김형준 미카엘 / 신곡2동 성당

2023년 겨울, 갑작스러운 회사 방침에 따라 나는 익숙한 의정부를 떠나 대전으로 발령을 받았다. 20년 넘게 지낸 의정부를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전 입신고를 마쳤고, 새롭게 구한 대전 집은 아늑함보다는 생경함으로 가득해 스산한 느낌마저 들었다.

회사의 지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내적 갈등은 어쩔 수 없지만 나의 내면 신앙심만큼은 굳건할 것이라 믿었다. 고향과도 같은 신곡2동 성당을 잠시 떠나더라도 오랜 시간 청년 활동을 하며 몸에 밴 신앙생활은 흔들림 없이 더 단단해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단지 교구와 본당이 달라졌을 뿐인데, '익숙하지 않은 낯선 본당' '적응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핑계를 대며 미사 참례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 청년 활동을 통해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허울 좋은 변명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교구 청년 도보 성지순례에서 인연을 맺었던 자매님 한 분이 툭 연락을 주셨다. "혹시 마르코 그룹 공부할 생각 있어요?" 작년 순례에서 서로의 신앙 여정을 나누며 청년 성서모임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탈출기 연수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먼저 연락을 준 것이다. 평소 마르코 공부에 관심이 있었지

만, '회사 일이 바쁘다.' '대전으로 발령받았다.'라는 이유로 잊고 있었다. 그런데 자매님의 시원시원한 추진력 덕분에, 순식간 그룹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대전에 거주하며 출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그룹원들은 너무나 따뜻하게 마음으로 안아주고 어루만져 주었다. 이윽고 시작된 제1과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르코 복음의 첫 문장이 마치 새로운 삶을 향한 선언처럼 느껴졌다. 모임을 마칠 때마다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룹원들을 통해 공동체의 온기를 느끼고, 흔들렸던 내 믿음을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다.

2025년, 교회는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회년을 지내고 있다. 나는 마르코 복음을 따라 걸으며 흔들림을 멈추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내면의 회년'을 살아가고 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자리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 주변의 모든 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매주 말씀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 아직은 신앙의 여정 한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 끝에 하느님이 계시리라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도 나를 다시 견게 만든다. 나는 오늘도 순례자처럼 희망을 따라 걷는다. ☺



교구
소식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요기도회' 안내

※ 10월 첫째 '토요기도회'(10/4)는 추석 연휴로 쉽니다.

문의 031-941-6236 민족화해위원회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0/10(금) 14:30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내용 성모찬가와 함께하는 묵주기도 & 미사

고3,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0/12(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교구 청년 10월 프로그램 - 바오로딸 수도회와 함께하는 HOPE STAY 피정

2025년 '희망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희년, 바오로딸 수녀님과 함께 기도하는 Hope Stay는

고요함 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10/14(화) 20시,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10/24(금) 20시,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대상 청소년 및 청년 (15~45세)

신청 청소년사목국 등록시스템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신청 ▶



2025 DMZ 평화의 길

날짜 10/17(금)~19(주일), 11/7(금)~9(주일) [2박] 대상 초3 이상 누구나 (차수별 40명 선착순)

회비 15만원

주최 민족화해위원회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신청 ▶



제37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꿍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10/17(금) 19시 ~ 19(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59 가정사목부

신청 ▶



의정부교구 제151차 ME 주말

48시간의 기적, ME 주말에 부부님을 초대합니다.

날짜 10/24(금)~26(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 주말분과 대표

전신자 성경 읽기 9/28(주일)~10/4(토) : 요한 17,1-19



10/25(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담화] 제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제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레오 14세 교황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1지구 성령 하루 피정

일시: 9/29(월) 09:30~17시
장소: 호평동 성당
오전강의: 김현우 바오로 신부 (인천교구)
오후강의, 미사: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서울대교구)
회비: 5천원 (점심제공)
문의: 010-9297-8821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순례 피정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위령성월피정: 11/2(주일)~4(화)
제주순례: 10/12(주일)~14(화), 10/27(월)~29(수), 12/6(토)~8(월), 12/12(금)~14(주일)
추자도순례: 11/22(토)~25(화)
연말연시피정 (한라산 일출, 일출): 12/31(수)~1/3(토)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9(금)~11(주일), 1/15(목)~18(주일), 1/23(금)~25(주일), 1/30(금)~2/1(주일), 2/6(금)~8(주일), 2/22(주일)~24(화), 2/27(금)~3/1(주일)
장소: 면형의 집
문의: 064-732-4702 (2026년 피정 접수중)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심 미사

일시: 10/3(금) 16시 (성시간 15시)
19:30 (성시간 18:30)
장소: 고양시 덕양구 삼막2길16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신청 필수)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하루생태피정 숲: 10/24(금), 11/28(금)
내안의 생명력 되찾기 피정: 11/15(토)~16(주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운정)
문의: 010-9099-2337 예수마음배움터
www.jesumaum.org

2025 한마음 수험생 가정을 위한 피정

일시: 11/13(목) 09:30~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대상: 수험생 자녀를 둔 모든 부모와 가족
회비: 1인 2만원 (점심식사 포함)
※ 피정비 4만원 중 2만원 청소년사목국 지원
준비물: 미사 준비, 묵주, 개인 컵이나 텀블러
문의: 031-840-0018 (내선 201)

특별초청 - 깔깔이 한국의 이파바로티

일시: 10/1(수) 18:30~20:30, 녹번동 성당 2층 소성전
주제: 깔깔이 한국의 이파바로티 (말씀·미사·안수)
강사: 이해동 라파엘 신부 (살레시오회)
문의: 010-2452-3359 (녹번역 4번 출구)

무료 치유 피정 - 매월 셋째(수)

일시: 10/15(수) 11시~16시, 갈현동 성당 지하강당
내용: 말씀치유 찬양, 미사, 안수/ 점심무료제공
강사: 김현우 바오로 (인천교구 해외 사목 담당)
문의: 010-4444-1264 (연신내역 7번 출구)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12/10(수) 17시 ~ 14(주일) 16시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동반: 이근상 신부 (예수회)
회비: 40만원 / 주최: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문의: 064-739-0951

신원동 성령기도회

일시: 8/21(목) 10시~12시
장소: 신원동성당 대성전
강사: 최영준 베르나르디노 신부 (작은형제회)
문의: 010-7711-0903

가정선교회 10월 피정

성가정 영성 피정: 10/1(수) 박현민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10/4(토) 김태광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0/18(토) 장재봉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시간: 12:30~16:50 / 장소: 가톨릭회관 1,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10/3(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베네딕토 성인의 영성의 발자취
강사: 김영철 베드로 신부 (전국 및 교구 담당사제)
문의: 010-2127-0032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첫토요 성모신심미사

일시: 10/4(토) 09:20~12시 (10시 미사)
장소: 일산 성당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57)
문의: 010-6303-8515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0/24(금)~11/1(토), 11/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숲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11/15(토)~18(화)
자연순례: 10/11(토)~13(월), 11/10(월)~13(목), 11/27(목)~29(토), 12/13(토)~15(월)
체나콜로대피정 포함: 10/16(목)~18(토)
문의: 064-796-4182, 02-773-1455

교육 · 모집 ▶▶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시다' 성체조배 가을 영성학교

일시: 10/15~11/12, 매주(수) 14시~16시 [5주간]
장소: 명동 영성센터 B201호 / 회비: 5만원
10/15 김현덕 신부, 10/22 장공선 신부, 10/29 하형민 신부, 11/5 최강 신부, 11/12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회장 강의, 지도사제 파견 미사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경통독 & 길잡이 그림틀

강의: 매주(월) 창세기 / 매주(수) 여호수아기
시간: 10시~17시 (파견미사)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인천교구 지혜의샘 (중동역 5분 거리)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edoran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일시: 10/13부터 (월~토) 10주
문의: 02-338-3793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 포함), 합창지휘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접수: 10/20(월)~31(금)
전형: 11/21(금), 최양업홀
문의: 02-740-9704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지금동 성당 10월 혼인교리 변경 안내

일시: 10/12(주일) 13:30~16:30
※ 추석 연휴 관계로 변경
장소: 지금동 성당 요셉홀
회비: 2만원 (커플)
문의: 031-567-3950 (전화접수)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일시: 10/27(월)~11/21(금) 17시까지
제1과정 (예비과정) 철학·신학, 62학점 (수강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 (석사과정) 교회법, 88학점 (수업료 50% 장학금 혜택)
문의: gsc.l.catholic.ac.kr

예수고난회 동반자회 제8기 모집

예수그리스도 고난수도회 재속3회(동반자회) 제8기
모집: 9/28(주일)~12/7(주일)
자격: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남녀 신자
문의: 010-7553-4672 담당자
02-990-1004 우이동 명상의집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접수: 9/29(월)~10/20(월)
전형: 10/25(토) / 문의: 02-705-8668~9

가톨릭 다운 합창단원 모집 - 혼성

모집: 10/17(금)까지
자격: 가톨릭 교우로서 성가대 활동 유경험자,
성악 전공자, 화음에 자신이 있는 분
오디션: 자유곡 1절을 반주 혹은 무반주 녹음하여
입단 담당자에게 파일 전송
연습: 매주(화) 20:30~22시, 대화마을 성당
담당자: 010-5275-3388 김 안드레아



2026년 작은형제회 이탈리아 순례 모집

81차: 3/11(수)~22(주일), 545만원
82차: 5/26(화)~6/6(토), 545만원
내용: 로마, 아씨시 및 프란치스코 성지
문의: 010-9704-9495,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0/28(화)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1/13(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1/17(토)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1/21(수)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14일)
2/2(월)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2/2(월)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www.catholictravel.co.kr

한국천주교순교자현양음악회 #3 공연

모니카교회음악원 가톨릭시니어합창단 2025 정기연주회
일시: 10/11(토) 17시 / 장소: 여의도 KBS홀
지휘: 이상희 모니카 / 기획연출: 심준보 베드로
회바: 2만원 / 문의: 010-5245-2848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2/8(월)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15(목) 베트남, 마카오 성지 (6일,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0/27(월) 포르투갈 일주 (9일, 405만원)
11/5(수) 과달루페, 칸쿤 (10일, 695만원)
11/12(수) 이탈리아 (11일, 560만원, 대한항공)
1/10(토) 남인도 성지순례 (7일, 350만원)
1/16(금) 상해 성지순례 (4일, 119만원)
1/19(월), 2/22(주일)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9만원)
3/23(월) 폴란드, 체코 (9일, 3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원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연극 <길 위에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삶을 조명하는 연극
“그는 순교의 길을 걸었고, 우리는 그 길을 꽃길로
기억합니다.”
일시: 10/24(금) 19시, 25(토) 15시·19시,
10/26(주일) 15시·19시
장소: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무료)
주최: 서울가톨릭연극협회
문의: 010-2990-7147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2026년 3/28(토) 599만원 (+2,2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1/12(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95만원)
11/21(금) 이태리 일주 (12일, 560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1/27(화) 마카오 김대건 신부님 발자취 (4일, 160만원)
2/14(토) 나가사키 (4일, 169만원)-구정연휴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 14박15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월 말)
주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교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DIocese of Uijeongbu

가톨릭 관련 허위·왜곡 콘텐츠에 대한 주의 당부

최근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매체에서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한 내용을
마치 교황 레오 14세의 말씀인 것처럼 조작한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영상은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지식이나
통찰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변질시킬 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공식 입장 및 관련 소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문헌마당



가톨릭 영상 교리



바티칸 뉴스 한국어판



하느님의 영적 피조물, 천사

9월 29일은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입니다. 천사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자 전령(傳令)으로서 육체 없이 지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이며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말락]인데, 구약성경에 213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느님의 말씀이나 그분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예언자나 사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천상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긴 칠십인역 성경에서는 [앙겔로스] (ἄγγελος)로 번역되어 하느님의 천상 대리자 혹은 인간 전달자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틴어로 옮겨지면서는 인간 전달자의 경우 [눈치우스] (nuntius)와 하느님의 천상 대리자의 경우 [안젤루스] (angelus)로 구별되었습니다.

아레오파고스의 성 디오니시오(사도 17,34)의 이름을 빌려 활동한 6세기의 위(僞)-디오니시오는 모든 존재가 서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구품천사론(九品天使論)입니다. 여기서는 천사의 세계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높은 계급에는 ① 치품(熾品) 천사 세라핌, ② 지품(智品) 천사 케루빔, ③ 좌품(座品) 천사가 있고, 중간 계급에는 ④ 권품(權品) 천사, ⑤ 능품(能品) 천사, ⑥ 역품(力品) 천사가 있으며, 가장 낮은 계급에는 ⑦ 주품(主品) 천사, ⑧ 대천사, ⑨ 천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 대천사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데, 미카엘(Michael, 다니 10,13.21; 12,1; 유다 1,9; 묵시 12,7)은 '누가 하느님 같으랴!', 가브리엘(Gabriel, 다니 8,16-17; 9,21; 루카 1,26)은 '하느님의 사람, 영웅, 힘', 라파엘(Rafael, 토빗 12,15)은 '하느님께서 고쳐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천사의 계급 이론은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590~604년 재위)에 의해 전례 기도문에도 반영되지만, 어디까지나 신학적 학설이지 믿어야 할 교리는 아닙니다. 교회가 믿도록 가르치는 바는 하느님께서 감각의 대상인 세상과 함께 감각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천사에 관한 내용이 신앙 교리로 선언된 건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년)에서입니다. 가톨릭교회는 하느님께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곧 세상과 천사를 동시에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DS 800, 3002). 또한 악마는 일찍이 하느님에게서 선한 천사로 창조되었으나(DS 286, 457) 자유 의지로 하느님께 대항하여 타락하였다고 가르칩니다(DS 800).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의 가르침에 따르면,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위엄을 갖추고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오시며(「교회헌장」 49항), 교회는 사도와 순교자들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공경하고 그들의 전구를 간청합니다(50항). 또한 성모님은 천사에서 모든 성인과 천사들 위에 들어 높여 계십니다(69항).

세 대천사 축일인 9월 29일은 5세기 중반 로마의 비아 살라리아(Via Salaria)에 있는 성 미카엘 성당이 봉헌된 날입니다. 이날이 미카엘 대천사의 축일이 되었고, 1921년 로마 전례력에는 3월 24일이 가브리엘 대천사, 10월 24일이 라파엘 대천사의 축일로 들어오는데, 1969년 전례력이 개정되면서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을 한 날로 묶어 9월 29일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행주성당** 성모순례지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뽕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요일	19: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성 시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상시, 사무실 문의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축일	본 명	명 단	
9/29	미카엘	류병운, 김남일, 유재우, 이기택 장성준, 남승현, 정지원, 권오을 최건민, 서승우	
		미카엘라	김인수, 이경은, 이혜민, 권오윤 최태자, 장소이
			라파엘
	라파엘라	정윤정, 김소연	
	가브리엘	유지민, 남윤재	
30	소피아	류은희, 이승연, 이수빈	
10/1	데레사	김상전, 조은행, 이윤경	

전 레

- 10월 성시간
일 시: 10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 10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10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공 지 / 단 체

- 10월 봉성체
일 시: 10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9월 28일	주송자	신은석 안젤라
	배성은 소사아가다, 구미경 리베라따	
10월 5일	주송자	전옥자 수산나
	고백주 안토니오, 허경옥 도로테아	

우리들의 정성 (9/15 - 9/21)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2건	150,000원
주 일 헌 금	980,000원
성지 개발 2차 헌금	583,000원

공 지 / 단 체

- 동절기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시간 변경 안내
동절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토요일 저녁 주일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시작일: 10월 4일 토요일부터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접수
합동 위령 미사 시간: 10월 6일 오전 11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실 분은 9월 28일 주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연례회 월례회의
일 시: 9월 28일 오늘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10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유임순 마리아, 류용구 말구, 박은성 요한 신재산 요셉, 이윤분 아가다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 예비신자 모집
교리 시작: 10월 12일 주일 오전 11시 미사 후
12월 주님 성탄 대축일에 세례성사를 받을 예비 신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답송

